

종교개혁 500주년 앞두고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26일 주님세운교회에서 종교개혁기념예배

오는 20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LA 교계 지도자들이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이다. 교계 원로 정시우 목사를 대표 회장으로, 김영대 목사를 준비위원장으로 해, LA 지역에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새길 뿐 아니라, 교회의 지속적인 갱신과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것이다.

지난 20일 한인타운 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미주 기념사업 준비위원회>는 다양한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오는 10월 26일 종교개혁 497주년을 기념하는 종교개혁주일 기념예배를 오전 11시 30분 주님세운교회에서 드린다. 설교는 미성대학교 류종길 총장이 맡았다.

곧 이어 11월 하순경에는 종교개혁에 관한 신학 세미나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3년 동안 다양한 신학 세미나를 분기마다 개최한다. 2015년 사순절에는 특별히 ‘루터’에 관한 세미나를 연다. 종교개혁에 관한 설교 컨테스트도 열어 목회자들이 종교개혁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며 특히 한인 2세 목회자들의 참여를 적극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500주년이 되기 전에 종교개혁 기념주일 공동 예배문을 작성해 LA 지역 한인교회들이 종교개혁을 통해 하

나되는 장도 마련하려 한다.

김영대 목사는 현대 교회의 권위 추락 문제를 지적하며 “목회자의 개혁이 필요하다. 교회의 신뢰도 상실을 통탄하며 다시 회복되는 개신교회를 세우기 위해 몇가지 일을 시작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상명 목사는 “한인교회가 성직주의, 성장주의, 승리주의에 매몰돼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 모든 교회가 연대, 연합해 변화를 주도해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최아브라함 목사는 “3년 간 열심히 준비하면서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으며 정시우 목사는 “우리 한인 이민교회가 어떻게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받아 함께 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부터 반성하고 회개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일단, 주님세운교회에서 드리는 종교개혁주일 기념예배를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하지만 향후 남가주 지역의 교회연합단체, 각 교단의 지도자 및 원로, 각 분야의 신학자들의 도움과 협력을 받아 이 운동을 전 한인교회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김준형 기자



OC 지역의 평신도들이 아프리카 어린이 돕기에 뜻을 모아 연합성가제에 참여했다.

“단 3센트면, 한 어린이에게 한 끼를”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제34회 연합성가제 개최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지난 10월 19일 저녁 6시 감사한인교회(담임 김영길 목사)에서 제34회 연합성가제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7개 교회 찬양대와 3개 어린이청소년 단체가 참여했다. 찬양제 수익금은 아프리카사랑재단(김용진 선교사)에 전달해 말라위의 결식 아동을 후원하는 데에 사용하기로 작정했다.

말라위 결식 아동의 하루 한 끼 급식 프로그램을 지난 수년째 진행하고 있는 김용진 선교사는 아프리카에서 보내온 감사 동영상을 통해 “아프리카 여러 지역 감옥의 재소자들이 제공하는 노동력으로 옥수수 등 농작물을 생산하고 그것으로 이웃학교 결식 아동들에게 영양죽(치콘디팔라)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목사이면서 형사법 관련 박사이기도 한 김 선교사는 넬슨 만델라의 초청으로 아프리카를 방문해 재소자들의 교화 및 형사법 관련 지원을 하던 중 아프리카 전 지역의 열악한 생활 환경을 목도한 이후 지

금까지 수년간 ‘사랑의 죽’(Crops of Love)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3센트면 한 어린이에게 한 끼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3만여 어린이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김 선교사는 “이를 아프리카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다”며 남가주성도들의 후원을 부탁했다.

한편, 연합회 회장 신복수 장로는 인사말을 통해 “6.25 사변 당시 굶주림을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번 찬양제가 갖는 의미가 더욱 크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이 일에 더욱 적극적인 사랑을 보내주셔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감사한인교회 담임 김영길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오랜 전통을 가진 평신도 연합회가 찬양제를 통해 뜻깊은 일을 감당한다.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며 참여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했다.

대표기도는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담임 남성수 목사) 한창훈 장로

(연합회 부이사장)가 했으며 OC교회협의회 회장인 민경엽 목사(나침반교회 담임)가 설교했다. 민 목사는 “한끼 식사 조차 어려운 말라위 어린이들을 위해 이곳에서 기도로 힘쓰는 우리가 되자”며 후원을 요청했다.

사회자로 나선 연합회 윤우경 이사장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곧 아버지 된 자, 어머니 된 자의 심정일 것이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는 동일한 마음으로 참여하자”고 독려했다.

전 출연진들은 34년 동안 한해도 거르지 않은 헨델의 메시아 중 할렐루야를 이번 행사의 음악총감독인 황성삼 집사의 지휘로 온 회중과 함께 찬양했으며 초대회장이었던 양문국 목사의 축도로 모든 행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연합회는 2015년 회기 활동을 위해 새로운 평신도 회원을 모집 중이다.

문의) 213-500-5449

김나래 기자

다음 주는 정기 휴간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관계자들. (좌측부터) 심명구 총무, 이상명 공동회장, 김영대 준비위원장, 정시우 대표회장, 최아브라함 협력위원장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혜택**
 (H.R. 3590 Religious Exemption)
월\$40~\$175
 • 수입과 신분에 상관 없음
 • 모든 의사, 병원 사용 가능
 • 한국에서도 사용 가능
 CMM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가입문의 213-700-9212
 www.christianmutual.org

나라정비 타이어 데리점
GOOD YEAR
 유류차 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월~금: 8am~6pm /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 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지원 마감일: 12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 는 11월 1일)

>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영이중언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 256-1311 EXT. 1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해산의 수고로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워 나가자

파사데나장로교회 창립 13주년 기념예배 드려

올해로 13살을 맞은 파사데나장로교회는 다시금 해산의 수고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최호년 담임목사와 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쓴 편지처럼, 해산의 고통이 없는 교회는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다시금 새기었다.

최 목사는 갈4장 19-20절을 본문으로 ‘해산하는 수고’라는 설교에서 “다시라는 말 만큼 쉬운 것도, 어려운 것도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최 목사는 갈4장을 인용하며 “사도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어주겠다고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비복음이 들어왔다.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사랑하겠다고 결심하고 이 편지를 쓴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다시 말씀으로,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며 “해산의 수고가 없이 교회는 온전히 세워질 수



파사데나장로교회에 새롭게 부임한 최호년 담임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없다. 한 생명 한 생명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뤄지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다하자”고 권면했다.

19일 정오에 드려진 창립기념예배는 자녀들과 성인들의 합동예배로 드려졌다.

이후 열린 환영의 시간에는 최호년 목사와 사모를 함께 축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훈훈한 교제를 나누었다. 최 목사는 “파사데나장로교회에 지난 1년간 많은 아픔이 있었지

만, 올해 창립 13주년에는 하나님께서 아픔이 치유되고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복음과 본질을 붙들고 다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자”고 말했다.

이 교회는 지난 8월 최호년 목사가 부임한 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슬로건 아래 전 교인이 하나되어 교회를 섬기고 있다.

이영인 기자

“Open Your Eyes”

2014년 밀알의 밤 성황리에 열려



2014 밀알의 밤에서 밀알수어찬양단이 찬양하고 있다.

밀알 장애인 장학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밀알의 밤”이 “Open Your Eyes”라는 주제 아래 17일 ANC온누리교회, 18일 주님의영광교회, 19일 베델한인교회에서 각각 열렸다.

올해 행사에는 아메리칸 아이돌 출신의 한희준, 영혼을 울리는 작은 천사 크리스토퍼 더플리가 초대돼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했으며 밀알수어찬양단이 특별 찬양을 해 큰 감동을 주었다.

특히 한희준 씨는 뉴욕 밀알선교단에서 봉사하며 느꼈던 바를 간증해 큰 은혜를 주었고 <그 사랑>, <마음이 상한 자들> 등의 찬양과 함께 <지나간다> 등 인기 대중가요도 열창했다.

더플리 군은 <Open the Eyes of My Heart>를 독창, <I Can Only Imagine>을 한희준 씨와 함께 불렀다.

남가주밀알선교단은 매년 밀알의

밤 행사를 통해 장학금을 모금해 장애인 학생들의 학업을 돕고 있다. 이 선교단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165만8천 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한 것으로 집계된다.

첫해 5만4천 달러를 모금해 15명 학생을 도운 이래, 지난해에는 16만 1400달러를 모금해 102명 학생을 돕는 등 밀알의 장학금 규모는 교회와 성도들의 후원으로 매년 증가해 왔다.

한편, 밀알은 2015년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대학생 및 대학원생 장학금, 근로복지장학금, 꿈나무장학금 등이 있으며 11월 14일까지 남가주밀알선교단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장학생에 뽑히면 12월 15일까지 개별적으로 통보가 된다.

문의) 657-400-9570
smilal@milalmission.com
문소현 기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건강한교회가 창립 2주년을 맞이해 교회를 섬길 일꾼들을 새롭게 세웠다.

건강한교회가 창립 2주년을 맞아 시무장로와 명예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각각 임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오병의 담임목사의 사회로 19일 드린 임직예배는 1부 예배, 2부 임직식, 3부 축하와 권면의 순서로 진행됐다.

설교를 전한 송정명 목사(월드미선대학 총장)는 벤전4장 8절-11절을 본문으로 ‘선한 청지기가 되라’

는 설교에서 “오늘 임직하는 분들은 청지기이다. 청지기의 사명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목사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다. 성도들의 허물을 볼 때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자가 청지기”라며 “항상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청지기처럼 봉사하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길을 늘 살피며 교회를 충

성되게 섬기라”고 전했다.

2부 임직식에서 4명의 장로와 2명의 명예장로, 1명의 안수집사, 3명의 권사를 각각 임직했다.

권면을 전한 박명석 목사(예성서북교회 증경노회장)는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명예, 계급이 아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전했다.

오병의 목사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을 가지고 평신도 리더를 세우길 소망한다”며 “사도행전적인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비전”이라고 말했다. 임직자 명단은 시무장로에 김규진, 신진묵, 이종열, 허종선, 명예장로에 이순복, 장경무, 안수집사에 최화열, 권사에 오인애, 이영숙, 최정래이다.

한편, 건강한교회는 주일예배를 1부 오전 8시, 2부 오후 12시 30분에 드리고 있다.

주소) 7037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90127
전화) 714-801-1625

이영인 기자

SRTCS 박사 과정 집중 수업

남부개혁신학대학원 LA 캠퍼스(SRTCS LA)는 11월 2일부터 8일까지 총 70시간에 걸쳐 박사 과정 집중 수업을 한다.

금번 박사 과정에는 기존의 선교학 박사(D. Miss.), 목회학 박사(D. Min.)에 더해 문화교류학 박사(Doctor of Intercultural Studies: D. Ics.) 과정도 추가됐다. 이는 타문화 선교 현장의 사역자들에게 실질적인 신학 연구 과정으로 구성된다.

금번에 집중수업에서는 성서 해석과 논문, 사도 영성과 부모 영성 등

두 과목을 여러 교수들이 팀 티칭 형식으로 수업한다. 수업 장소는 2975 Wilshire Blvd. #415 Los Angeles, CA 90010이며 문의는 213-219-0649, bostonch@hotmail.com로 하면 된다.

수업은 2일에는 오후 6시부터 10시, 3일부터 7일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9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된다. 신입, 편입학이 가능하며 박사 과정의 수업료는 과목당 400달러, 청강은 100달러이다.

새 빛 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바드
3130 W. Olympic Blvd, Suit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서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원)w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천천히 다 돌려보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DK HEALTH INSURANCE, INC.

건강보험 전문회사 DK 건강보험(구 하나건강보험)이

65세 이상의 메디케어 건강보험과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을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강 보험 플랜을 취급합니다)

오바마 건강보험 (Covered CA)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에이전트로부터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 DK 건강보험에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카카오 계정을 통한 지속적인 서비스로 최고의 고객만족을 제공 합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현재의 소득이 10% 이상 증가하거나 10% 이하 보험료가 줄었습니까? 가족구성원의 수가 변하였습니까? 현재의 건강보험을 2015년에도 유지 하고 싶습니까? 저희 DK 건강보험에 연락 주세요, 혹은 카카오계정을 이용 하시면 더욱 편리 합니다.

1. 손님의 요구에 따라 각 카운티와 계약된 모든 건강보험을 보험료와 보험혜택을 꼼꼼히 비교 분석하여 드립니다.
2. 정부의 건강 보험 플랜이기 때문에 메디칼 그리고 커버드 캘리포니아 플랜과의 소득에 따른 연관성이 있습니다. 플랜 가입후 메디칼에 대한 고객 서비스 그리고 각 헬스 플랜에 따른 고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처방약이 보장되는지 그리고 의료 외 혜택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해 항상 여러분곁에 있습니다. 카카오 계정 DKHEALTH 나 213-500-4563 을 기억 하십시오.)

메디칼 메디케어 특별 필요 플랜도 도와드립니다
1. 메디케어만 가지고 있는 분들의 건강보험을 분석하고 메디케어 수혜자에게 가장 맞는 건강 보험을 비교 분석하여 드립니다. (처방약 비용 분석, 처방약 보장 분석, 치과 혜택 분석, 안경테 렌즈, 보청기, 헬스클럽등의 배니핏이 최대한 보장되는 플랜을 비교 분석하여 드립니다.)
2. 당뇨질환이나 심장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메디케어 건강 보험
3. 신장투석을 하고 있습니까? 신장투석을 하거나 신장이식을 하신 분들을 위한 건강 보험 등을 분석 검토하여 드리겠습니다.

메디칼과 메디케어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들의 건강보험
메디칼과 메디케어의 통합에 따른 여러가지 건강 보험중에서 고객에게 가장 맞는 건강 보험을 고객의 요구에 따라 맞춤 서비스를 하여 드립니다. DK 건강보험은 메디케어의 신청 메디칼의 신청 엑스트라 헬스 플랜의 신청 그리고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의 신청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카카오 특 서비스를(카카오 계정 DKHEALTH 혹은 213-500-4563을 저장하세요) 제공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카카오 톡을 통해 건강보험의 궁금한 점을 질문하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신분이나 세금을 내신 기록에 따른 보험료가 달라 질 수 있지만 최대한 저렴하며 보험가입자의 혜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0세부터 65세까지의 모든 건강 보험을 도와드립니다. 65세 이상의 건강보험도 도와드립니다.

문의 전화 1-855-386-3088, 1-213-500-4563
LA 본사 주소: 520 S VIRGIL AVE #204 *샌 디에고, 오렌지 카운티, 다이아몬드 바에도 오피스가 있습니다.

DK HEALTH INSURANCE, INC. (구, 하나건강보험)

DKHIS.Inc LIC #: 0146629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로 박경호 목사가 취임했다. 취임예배를 드린 후 기념촬영.

얼바인침례교회 박경호 담임목사 취임해

40주년 맞이해 새로운 도약 다짐

얼바인침례교회의 제4대 담임에 박경호 목사가 10월 19일 취임했다. 지난 2013년 10월 20일 한종수 목사가 사임한지 딱 1년 만이다. 박경호 목사는 지난 8월 17일부터 이 교회에서 설교해 왔으며 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주간에 취임예배를 드렸다.

박경호 목사는 건국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후, 대전 침례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 과정을 마친

후, 현재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으며 로스앤젤레스 한인침례교회에서 부목사를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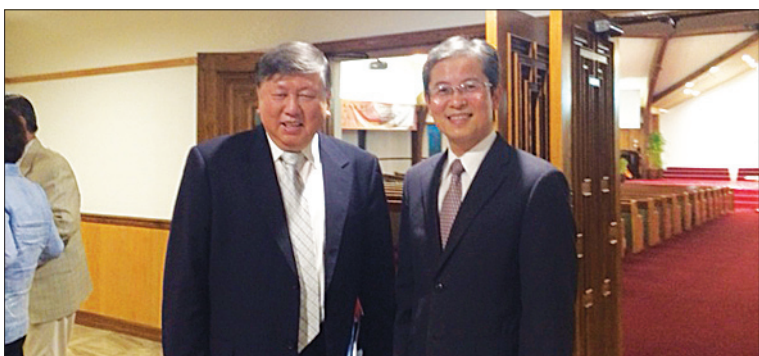
이 취임예배에는 이 지역 침례교 목회자들이 대거 참석해 축하했다. 박 목사가 부목사로 섬긴 로스앤젤레스교회의 박성근 목사는 17일, 18일 얼바인침례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부흥회를 인도한 후 취임예배에도 참석해 “더 위대한 항해를 위해”라

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또 포도원교회 정영민 목사, 씨월드침례교회 이호영 목사, 리버사이드침례교회 남용순 목사, 임마누엘침례교회 한중호 목사, 교단 원로 박정직 목사 등이 참석해 순서를 맡았다. 특별히 한국에서 박경호 목사의 아버지인 박일래 목사가 참석해 권면의 메시지를 전해 큰 감동을 주었다.

문소현 기자

OC한인교회 이용걸 목사 초청 부흥회 “변화된 삶”



부흥회를 인도한 이용걸 목사(좌)와 OC한인교회 담임 남성수 목사(우)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남성수 담임목사)가 2014년 추계부흥회를 이용걸 목사를 초청한 가운데 <변화된 삶>을 주제로 17일부터 19일까지 개최했다.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 목사는 총 5번의 집회에서 “근심하지 않는 삶”, “화목의 삶”, “성화의 삶”, “바른 삶”, “깨달음” 등을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용걸 목사는 총회신학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으로 유학와 이스턴칼리지, 웨스트민스터신학교 등을 졸업했다. 1981년 이래 영생장로교회에서 시무하고 있으며 필라델피아 지역 최대의 한인교회로 성장시켰다.

이번 집회에서 이 목사는 시종 열정적으로 메시지를 전했고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변화된 삶을 결단했다.

한편,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는 이 부흥회를 기점으로 11월 9일 찬양의 축제, 11월 16일 전도 축제 및 간증의 밤, 11월 30일 새가족 환영의 밤 등으로 열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문소현 기자

JAMA 대표에 강순영 목사 취임

“생명 다해 충성할 것” 다짐

김춘근 교수에 이어 강순영 목사가 JAMA의 2대 대표로 취임했다. JAMA 이사회에서 대표로 선임된 강 목사는 지난 7월 1일부터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해 왔으며 10월 17일 공식 취임했다. 강 목사는 한국대학생선교회에서 8년간 사역하다 1981년 미국 내에 한인대학생선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파송 받으며 미국으로 왔다. 15년간 미주 지역의 대학생선교회를 섬기면서 동시에 1993년부터 김춘근 교수와 함께 JAMA를 시작해 21년 간 총무, 부대표 등으로 섬겨 왔다.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 이취임예배에서 김 교수는 강 목사가 대표로 취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지난해 JAMA의 20주년을 맞이하며 김 교수는 대표직을 2세 지도자에게 이임하려 했지만 2세들이 사임을 만류함에 따라 잠시 그 뜻을 보류했다. 그러나 올해 초 김 교수는 “대표직을 내려놓고 GLDI를 4년제 대학으로 발전시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지도자를 키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됐다. 그는 또 다시 2세 지도자를 후임으로 찾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왜 네 옆은 보지 못하느냐”는 책망을 듣고 강순영 목사에게 그 뜻을 전달했다. 강 목사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고사했지만 그 역시 기도 응답을 받고 결국 4년 임기의 대표직을 수락하게 됐다.

김 교수는 “그동안 JAMA가 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라면서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 도움과 후원에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그는 JAMA 컨퍼런스, 중보기도 컨퍼런스 등 JAMA의 주요 사역들을 회고하면서 “미국이 회개하고 대각성 해 세계를 섬기는 나라로 변화되는 부흥이 일어날 것을 믿는다”고 전했다. 특별히 그는 강순영 목사를 비롯해 JAMA의 스텝들을 치하하고 “최고의 팀”이라고 극찬했다. 김 교수는 JAMA의 대표직을 이임한 후, 이사장 및 설립자가 되어 GLDI 등 차세대 교육에 전적으로 헌신하게 된다.

강순영 목사는 “하나님이 부흥을 위해 시작하신 이 운동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제 생명을 다해 충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취임예배에서 김춘근 장로(좌)와 강순영 목사(우)가 뜨겁게 포옹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강 목사는 “김 교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잘 계승하고 미국을 위한 전국적 기도 부흥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또 특별히 “1.5세, 2세 사역자들이 성공적 목회를 하고 있는 EM 선배 목회자들로부터 멘토링을 받는 프로그램을 시작해 차세대 사역자들을 격려할 계획”이라 전했다.

탈북신학교의 벤신 교수는 “김춘근 교수는 모든 면에서 모델(Model)이 될 만한 분”이라 칭하면서 “그는 또한 비전(Vision)의 사람이고 기도(Prayer)의 사람이다. 당신은 우리의 MVP다. 감사하다. 수고하셨다”라고 했다. 이날은 김철민 장로(CMF 대표), 박용덕 목사(OC교협 이사장), 한기홍 목사(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회장), 민경엽 목사(OC교협 회장),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 김영찬 목사(OC목사회 회장), 정장수 목사(올림픽장로교회) 등 교계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모든 목회자들이 강 목사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의 안수기도를 했다. 김준형 기자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24hr 한국어 서비스

굿모닝 보험 213.761.9990 KEVIN YOO

믿을 수 있는 농협 한삼인

창고대 방출

농협 고려인삼 한삼인 서부총판

1-866-902-8282
www.korginseng.com

LA 지점: 3130 W Olympic Blvd #120 LA CA 90006
T.323.737.8888

홍역민지점: 1701 W Orangef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213.453.6624

홍삼순액

100%홍삼농축액

100g 소비자가격	\$90	240g 소비자가격	\$185
2개 구입시 \$150		2개 구입시 \$370	
3개 구입시 \$180		3개 구입시 \$555	
4개 구입시 \$230		4개 구입시 \$450	

30포 \$120
60포 \$180
90포 \$255
120포 \$320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Q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융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미연방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나성서부교회와 새로남교회가 통합하며 서건오 목사가 담임에 취임했다. 취임예배 후 주요 식순자들이 기념촬영했다.

나성서부교회 새로운 도약 향해

교회 통합 후 서건오 목사 담임 취임

나성서부교회와 새로남교회가 서로 통합하며 나성서부교회의 3대 담임목사에 서건오 목사가 취임했다. 19일 오후 4시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통해, 그동안 이정현 담임목사의 사임으로 김승곤 원로목사 체제에 의존해 왔던 나성서부교회는 새로 청빙된 서건오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또다른 새출발을 맞이하게 됐다. 서 목사는 새로남교회의 담임목사였다.

고주모 목사(LA서부교회 담임)의 사회로 시작된 취임예배는 기도 정석수 목사, 설교 김남을 목사

(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서가주노회장), 권면 이운영 목사(한미장로교회 담임), 축사 임은찬 목사, 축도 이춘준 목사(창대교회 담임) 순으로 진행했다.

김남을 목사는 고후5:8-10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설교를 전했다. 그는 “오늘은 두 개의 교회가 하나로 통합되어 하나님께 영광드리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중요하고도 기쁜 날이다”라고 축하했다.

이운영 목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 고린

도 교인들이 마음을 넓힐 것을 권면한 것처럼 나성서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마음을 넓히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두 교회가 하나로 연합된 나성서부교회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통해 아름다운 감동의 소리만이 널리 널리 울려 퍼져 나가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임은찬 목사는 “하나님의 참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이 지역의 모든 불신자들을 품고 전진해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한다”고 전했다.

취임식에서는 노회 위임국장 김남을 목사의 집례로서 목사가 위임서약을 하고 위임패를 전달받았다. 성도들은 서건오 담임목사 청빙을 받아 들이는 교인 서약을 했다.

서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 드린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두 교회가 하나되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품고 사명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세워진 나성서부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힘써 기도하겠다. 하나님께 기쁨되고 빛과 소금이 되어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모든 성도들과 함께 충성하겠다”고 말했다.

주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90019
전화) 323-939-7323

이영인 기자



남가주사랑의교회가 영적각성집회를 개최했다.

남가주사랑의교회 영적각성집회 열려

남가주사랑의교회가 17일부터 19일까지 영적각성집회를 개최했다. 이 집회에서는 토론토 서부장로 교회의 박현승 목사가 “하늘의 문을 여소서”, “회복하게 하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 “떡일 것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는 “영적 각성은 어떻게 하는가? 기도하는 것이다. 깨어 기도하는 진정한 영적 각성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경에 나오는 기도 가운데 타인을 위한 기도

를 예로 들어 설명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목사는 “자신의 필요도 중요하지만 열방을 섬기고 사랑하는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가주사랑의교회는 10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다음 세대와 교회를 위한 1140 기도회를 드리고 있다. 이는 하루 한 번씩 40일간 다음 세대와 교회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전교회적 기도 캠페인이다.

문수현 기자

○교계 단신

나성소망교회 새생명감사축제 “바나바처럼 전도하자”

나성소망교회(담임 김재율 목사)는 오는 10월 26일부터 11월 23일까지 새생명감사축제를 개최한다. 교회는 이 4주간 동안 한 성도가 한 명을 전도하자는 취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0월 26일에는 새가족 환영회와 기도원 저녁예배가 있고, 11월 2일에는 이경연 전도사의 특강, 11월 9일에는 영적 무장의 시간을 갖게 된다. 11월 16일에는 추수감사주일을 기념해 효도잔치

와 칠면조 오찬을 즐긴다. 17일부터 20일까지는 이민감사 특별새벽기도회가 열린다. 그리고 마지막 11월 23일에 새생명감사축제를 하며 B형 간염 무료 검사와 맛있는 오찬이 준비된다.

나성소망교회는 이번 행사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성도되자”라는 주제 아래 “바나바처럼 전도하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준비하고 있다. 나성소망교회는 월서팩초등학교를 빌려 예배드리고 있다. 문의) 213-380-0258

터스틴제일침례교회 옹기장이선교단 초청 찬양집회

터스틴제일침례교회에서 오는 11월 1일 오후 7시 한국의 옹기장이선교단을 초청해 찬양 집회를 연다. 1987년 시작된 옹기장이선교단은 한국을 대표하는 찬양선교단으로 현재까지 약

20기 멤버를 배출했고 300여 명의 단원들이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다.
주소) 1618 E. 17th St. Santa Ana, CA92705
전화) 714-836-5530

성막에서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지난 20일 로드랜드대학교에서 열린, 송택규 목사의 신간 출판을 감사하는 예배와 공개 세미나에 교계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세계크리스천영성 대표인 송택규 목사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핵심적인 교리인 구원에 관해서 성막을 통해 설명하는 책 ‘성막영성’을 펴내 화제가 되고 있다. 송 목사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성막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개념과 단계를 하나하나 펼쳐 내며 이를 영성이라는 주제로 도출해 내고 있다.

그는 성막을 회막문, 성막뜰, 번제단, 물두멍, 성소와 지성소 등으로 구분한다.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단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인 회막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후에는 성막뜰로 제물을 갖고 나와야 한다. 이것은 회개와 연결된다. 번제단에서는 제물을 다 태운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의롭다 하는 칭의를 말한다. 물두멍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 손을 씻는

곳으로 거룩함을 뜻하는 중생의 개념이 표현돼 있다. 마지막은 성소와 지성소인데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곧 우리들이 성화되는 과정을 말한다. 송 목사는 성막의 모든 단계와 구조를 철저히 구원에 맞추어서 설명해 내고 있다.

그는 성막을 모형으로 해서 구원의 단계를 설명할 뿐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성경의 구절을 들며 참된 믿음, 회개, 칭의, 중생, 성화 등의 문제까지 차근차근히 다루어 간다. 또 이들을 현대교회의 예배, 성도의 신앙생활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송 목사는 “성막의 비밀을 통해서 교회들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영성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이 땅에 속히 실현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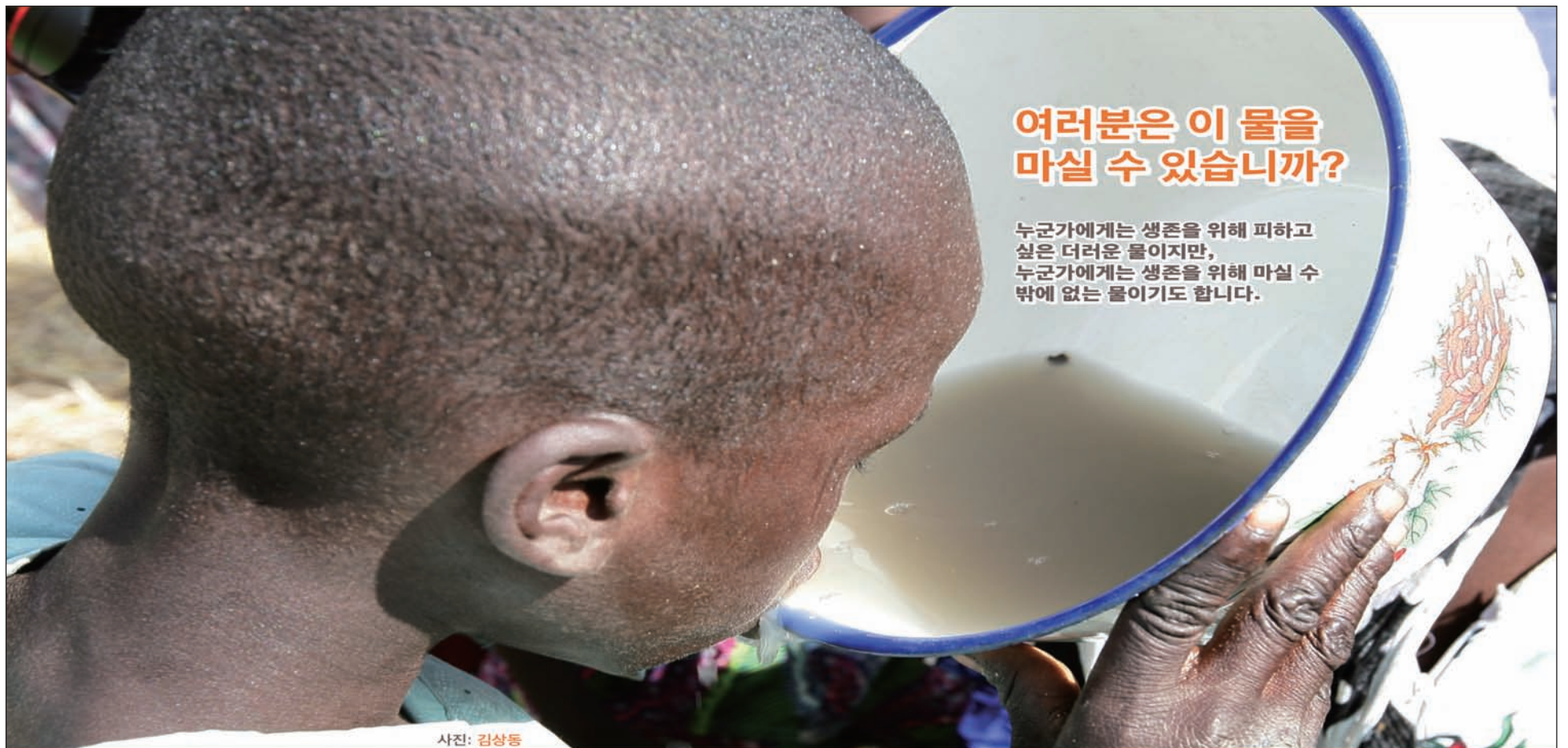
한편, 20일 로드랜드대학교에서 출판감사예배 후 “건강한 교회 성숙을 위한 성막 영성 공개 세미나”가 개최됐다.

문의) 213-663-8640
김준형 기자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맹토마스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여러분은 이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생존을 위해 피하고 싶은 더러운 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생존을 위해 마실 수밖에 없는 물이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10억 인구중 5억 8천만 명이 오염된 식수를 마시고 있으며, 한 해 수인성질병으로 사망하는 아동만도 1,500만명에 이릅니다.

Good Neighbors

굿네이버스는 UN의 최고 고문 기관으로써 오염된 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우물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후원신청: 1-877-499-9898
www.goodneighbors.org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 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 픽업가능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선교학 Ph.D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소설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무료 체험(온열 요법)

당뇨 합병증으로 **발**이저리고 아프신분

- 발이 차고 시리며 저리신분
- 각종 통증으로 고통이 심하신분
-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통증이 심하신분
-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분
- 병원에서 치료가 잘 안되시는분

주님이 주신 자연치유 요법으로 편안케 해 드립니다.

“예약하신분만 체험이 가능합니다”

2836w 8th # 106 Los Angeles CA 90005

전화: 213)381-7273, 213)605-2928

미주 기독교 의료봉사 센터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한국 찬송가는 언제 처음 출판되었을까?



김인수 목사
전 미주장로회신학대 총장

여호와와 동락하니 무궁무진 즐겁도다.” 참으로 순수한 신앙고백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장로교 선교부는 <찬양가>는 언더우드 혼자 만든 것이므로 공인된 찬송가로 쓸 수 없다고 결의하여 한 동안 비공인으로 쓰였다. 1895년에는 장로교 선교사 리(G. Lee)와 기포드(M. H. Gifford) 부인이 편찬한 <찬성시>가 출판되었다. 언더우드의 <찬양가>는 서울에서, <찬성시>는 평안도 지역에서 사용되었다. 1902년 장로회 공의회에서 <찬성시>를 장로교회 공인 찬송가로 결의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장로교회의 첫 공식 찬송가이다.

감리교회는 1892년에 나온 <찬미가>를 1895년에 증보하여 사용하였다. 윤치호(尹致昊)는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단독 <찬미가>를 편집하여 출판했다. 그의 <찬미가> 속에 그가 작사한 오늘의 애국가 가사가 들어 있는 것이 흥미롭다. 당시 교회의 애국중군(愛國忠君)의 기상을 나타내 보이는 단면이다.

여러 교파가 각각 자기들만 쓰는 찬송가를 통합하여 쓰자고 하는 의견이 나왔다. 1905년 한국에 나와 선교하던 여러 선교회들이 '재한복음주의선교공의회'를 조직했다. 이 공의회는 공용 찬송가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 일을 추진했다. 1908년에 이르러 장·감·양 연합하여 <찬송가>를 발행했다. 1924년 장·감·양 교회가 찬송가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1928년 <신정찬송가>(新訂讚頌歌)를 다시 출판했다. 그러나 이 찬송가

에 불신자인 이광수, 이은상 등이 작사한 찬송이 들어 있다는 이유로 장로교회에서는 이를 배척했다. 이에 따라 장로교회는 1934년 <신편(新編)찬송가>를 따로 출판하여 사용하기 시작했고, 감리교회는 <신정찬송가>를 그대로 사용하여 찬송가 합동 사용은 끝나게 되었다. 한국교회가 다시 초교파적으로 찬송가를 공히 사용하기까지는 1983년 <통일찬송가>가 나오기까지 약 50년을 기다려야만 했다.

군소 교파들은 각기 자기들 교파에 맞는 찬송가를 만들어서 사용하였다. 영국 성공회는 1903년에 <성회송가>를, 그리고 1904년에 <천도찬사>를 편찬해 사용했다. 구세군은 1908년에 <구세군가>를, 그리고 성결교회의 전신인 동양전도회는 1911년에 <복음가>를 편집 출판하여 사용하였다. 그 후 1913년에 <부흥성가>를 편찬하여 사용하다 1930년 <신정복음가>를 증보, 개편하여 사용했다.

찬송가 사용에 대해 게이(J. S. Gale)는 “우리(서양식) 음악은 한국인들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인다. [음악의] 가락이나 표현만으로 본다면 '만세반식'의 [엄숙한] 표현보다 경쾌한 곡조가 더 좋다”고 언급했다. 구미인의 찬송은 한국인에게는 맞지 않음을 지적한 것이다. 서양 교인들이 부르는 찬송가를 번역하며 한국교인들이 부르는 것보다는 한국인들 정서에 맞는 한국인 자신의 찬송가를 불러야 마땅하다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나 당시 상황으로 보아, 한국인들에 의한 한국인 작사, 작곡 찬송가 출현은 시기상조였다. 문제는 그때로부터 한 세기가 지난 오늘날도 우리가 부르는 찬송 대부분이 서양 사람들이 작사, 작곡한 것을 그대로 번역하여 부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우리 교회는 서양 선교사들이 전해 준 찬송가를 부르던 시대를 지나 우리의 정서에 맞는 우리의 찬송을 작사, 작곡하여 부를 때가 이미 지나지 않았을까?

그 마음이 보입니다



김지성 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속에서 다양한 행동이나 태도가 만들어지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각기 다르다는 증거입니다.

한국 속담에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 보는 것이 어렵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를 유심히 살펴보면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 보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처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뼈뺀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 해도 드러난 행동유형은 “내 마음 속에 상처가 가득해요”라고 외칩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행동 속에 교만이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결코 교만하지 않다고 항변해도 결코 교만이 스며든 행동이나 태도는 감춰지지 않습니다. 마음 속에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이기적인 행동이나 태도를 반드시 표출시킵니다.

반대로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그 태도나 행동이 평온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투도 부드럽고 억양이나 표현도 겸손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서는 사랑스러운 행동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행동이나 태도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일 수 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마음을 강조합니다. 한글 개정개역 성경에서 '마음'을 검색해 보니 구약에서 819회, 신약에서 239회, 총 1058회가 사용되었습니다. 왜 성경이 마음에 관하여 이렇게 많은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신앙은 '마음을 가꾸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거칠어지면 삶이 거칠어집니다.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란 뜻은 단순히 외모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좋은 사람, 마음이 훌륭한 사람을 뜻합니다. 역으로 나쁜 사람, 못된 사람도 같은 의미를 지녔습니다. 마음이 나쁘거나 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로마서 8:27).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또는 나쁘다는 것은 예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인간관계도 사실 알고 보면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떠났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형식적인 인간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통하는 인간관계가 진정한 인간관계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생활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교회를 떠났다면 그는 이미 그 교회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지요? 여러분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아무도 볼 수 없을 것이라 믿고 계시는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2020까지 10억명에게 복음 전할 것”

국제CCC 더글라스 총재 특별 기자간담회



더글라스 총재가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CCC

한국대학생선교회(CCC) 2014 동아시아 간사수련회(EAOrt All Staff Conference)가 진행 중인 강원도 홍천 대명비발디파크에서, 둘째 날인 20일 오후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국제CCC 총재 스티브 더글라스 박사와 동아시아 지역 대표 윤승록 목사, 한국CCC 대표 박성민 목사 등이 참석해, 국제CCC와 동아시아 사역, 향후 사역 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윤승록 목사는 간담회에 앞서 “최근 20주년, 40주년, 50주년을 각각 맞이한 동아시아 사역 국가들을 돌아보면서, 그간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수고한 동역자들을 격려했다”며 “2020년까지 1천만 명의 제자 양육이라는 비전을 놓고, 변화될 CCC 사역에 있어 동아시아 지역 전임간사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하나의 비전을 공유하고 이를 위해 헌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스티브 더글라스 총재는 국제CCC의 사역에 대해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CCC를 부르신 목적은 분명하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승법번식(전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제자화시켜, 그들이 또다시 제자를 세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라며 “이 일이 간사들뿐 아니라 제자들에게로, 제자들에게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달되도록 동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글라스 총재는 오는 2020년까지 10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비전 2020’을 이루기 위해 대학생 사역, 커뮤니티 리더 훈련, 디지털 사역, 교회개혁 사역 등 4가지 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이와 같은 사역을 다른 선교단체 혹은 지역교회와 함께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승록 목사는 “7개 국가로 구성된 동아시아 지역에는 4억 3천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며 “총 1,700

여 명의 전임간사들이 사역하고 있고, 이 중 450-500명이 세계 43개국에서 선교사로 사역 중”이라고 밝혔다.

윤 목사는 “3,400여개 대학 중 400여곳에서 간사들이 사역 중”이라며 “특히 한국과 싱가포르, 대만에서는 성숙한 캠퍼스 사역을 진행하고 있어 최종 사역단계인 ‘Stage 3’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동아시아 지역 사역 현황을 소개했다. 그는 “앞으로 동아시아 지역이 세계 선교에 기여하도록, 선교사를 파송하고 재정적인 지원과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지 역할을 감당하고자 한다”는 기대도 전했다.

내년 1월부터 동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책임자가 되는 박성민 목사는 마지막 발표자로 나서서 “한국CCC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만큼, 세계 선교에 대한 책임도 막중하다”며 “국내 그리스도인의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오히려 정예화된 그리스도인들은 늘고 있어 아직 소망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목사는 “이는 한국CCC의 간사지원자 수나 여름수련회 참석 학생들의 수가 전체적으로 증가하거나 유지되고 있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며 “오는 2016년부터는 매년 100명 이상이 간사로 지원하면, 그 중 절반 정도는 선교 사역의 일꾼으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IT 인프라를 활용한 미디어 전도 전략에 대해 “한국을 넘어 미디어 세대에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전했다.

지난 2003년 이후 11년만에 개최된 CCC 동아시아 간사수련회는 19일 개막해 25일까지 1주일간 진행되며, 한국·대만·싱가포르·일본·몽골 등 7개국 전임 사역자 984명이 참석했다. 이대용 기자

“무너진 공립 교육 향한 주님의 마음 깨달아”

사이프레스 교육구 교육위원회에 출마한 샌드라 이 후보

사이프레스 교육구 교육위원 선거에 한인 샌드라 이(Sandra Lee) 씨가 출마해 11월 4일 시민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3명을 뽑는 선거에 발레리 피터스 와그너(Valeri Peters Wagner) 위원장, 스티브 블론트(Steve Blount) 교육위원 등 2명의 현직 위원들과 CSU 롱비치 캠퍼스의 리디아 손디(Lydia Sondhi) 교수, 샌드라 이 씨 등 4명의 후보가 출마한 상태.

이 후보는 UC얼바인을 졸업하고 UCLA에서 교육학 석사를 받은 후, 실제 공립학교 교사로 수년간 가르치며 실무를 익혔다. 매그놀리아 교육구에서 교사를 지도하고 상담하는 지도교사로 일한 경험을 통해 동료 교사들을 이해하는 데에도 밝다. 현장과 실무, 행정을 두루 경험한 인물인 데다 본인도 학부모로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

이 후보는 “저는 정치인이 아니다. 그저 우리 지역사회의 학생과 부모를 섬기고자 하는 시민이요, 어머니이며, 교사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가 내거는 공약도 이런 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먼저 교육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자산을 학생들의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대학 진학이나 취업에 필요한 튼튼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커리큘럼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모든 교육 직원과 교사, 학생과 부모, 지역사회가 내일을 꿈꾸며 소통하는 것도 공약 중 하나다.

무엇보다 그가 이번 출마를 결심

한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강한 소명의식 때문이다.

“에스겔 22장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대의 무너져버린 교육 현장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 울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그 틈새를 막아설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지만 주님 앞에 담대히 사명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게 됐습니다.”

이 후보는 “2003년 이래로 다음 세대의 변화를 위해 공립학교 교사로 헌신해 왔다. 교실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교육구에서 교육감을 도와 교사들을 훈련시키며, 학교 행정과 커리큘럼 문제를 고민해 왔다”면서 “이런 고민과 기도 속에서 더 나은 교육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 자녀들을 21세기가 요구하는 학생들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공립 교육의 가장 큰 중심축은 각 교실에서 가르치는 교사이며 교사를 어떻게 훈련시키느냐에 따라 교육의 질과 양이 달라진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한인 부모들과 교회에도 감사를 전했다. 그는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 우리 부모님들의 땀과 눈물의 기도가 없었다면 오늘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사이프레스 교육위원 샌드라 이 후보

말한 후 “저를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해 준 한인 이민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었기에 저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후보는 한인들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주 안에서 동역자 된 여러분. 여러분의 한 표가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매우 직접적인 정책들을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교육의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도와 함께 투표로 행동해야 합니다.”

한편, 이 후보는 LA사랑의교회 집사이며 그의 남편 이재영 집사는 LA사랑의교회 청소년 공립 대안고등학교의 행정 디렉터다. 또 이 후보는 라팔마 시 부시장인 피터 김씨의 친누나이기도 하다.

김준형 기자

글로벌한 선교적 교회 컨퍼런스 열린다

“많은 한인교회가 이슬람권인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위해 투자했고 실질적인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미주에 아프간 현지 사역자가 개척한 아프간인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북미주개척교회(CRC)에서 한인 코디네이터로 사역 중인 찰스 김 목사는 이번 글로벌 교회 컨퍼런스를 이렇게 소개했다. 글로벌은 영어 Global과 Local의 합성어로 세계적 이면서 동시에 지역의 특색에 맞추어지는 것을 뜻한다. 이를 교회의 복음전파나 선교의 개념으로 가져오면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태도를 가리키게 된다. 이는 요즘 선교학계에서 대두되는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 개념과

도 일맥상통하게 된다. ‘보냄을 받은 존재’로서 교회는 타문화권은 물론이고 자문화권 내에서도 끊임없이 삶의 영역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글로벌 교회와 선교적 교회라는 두 가지 개념에 입각해 교회의 사역과 미래를 토론하는 시간이다. CRC 교단이 주도하는 행사이지만 칼빈신학교, 풀러신학교, 크리스천리폼드홈미션, 크리스천리폼드월드미션 등의 단체가 협력한다. 한국에도 잘 알려진 신학자이자 선교적 교회 운동가인 앨런 록스버그를 비롯해 뉴송교회의 데이비 기브스 목사 등이 강사로 참여하며 한인 중에도 크리스천리폼드홈미션의 디렉터 정모세 박사, ITS의 총장 제임스 리 박사 등이 강연을 맡는다. 이 외에도 팀 소련스, 스

티브 팀머맨스 등 선교적 교회 운동에 관한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 컨퍼런스에는 특별히 한인 트랙이 별도로 개설됐다. 아름다운교회 고승희 목사, LA생명찬교회 김동일 목사 등이 한인 트랙에서 강의한다. 아름다운교회는 화교, 일본인들이 교회당을 빌려 사용하며 공존하는 선교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고 LA생명찬교회는 카페와 저가 식당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고 장애우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강사들은 선교적 교회에 대한 현실적 묵회 감각을 가진 이들로 구성돼 있다.

이 컨퍼런스는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또감사교회(최경욱 담임목사, 1440 N. Spring St. Los Angeles, CA90012)에서 열리며 자세한 내용은 www.glocalchurch.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준형 기자

중·소형 교회 목회자를 위한 자동차 특별 리스

'파스터 패키지'(Pastor Package)

크레딧이 없거나 나빠도 OK!
중·소형 목회자를 위한 원가세일!



차종: 엘란트라, 소나타
구입서류: 목회자 증명서, 현재 목회하고 있는 교회 주보, 소득증명서

▷연락처: 213-276-8959 (찰리 정 매니저)
▷주소: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Puente Hills Hyundai



찰리 정

www.SuperMirapharm.com

투병생활이 필요없는 치유의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천연 치료제 개발!!

미라팜-22 MIRAPHARM-22

22세기형 생명공학적인 첨단 의약품으로 탄생했습니다.

2014년 한국은 면역조절제 개발이 국가적 신약개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른바 생물학적 면역조절제 개발 프로젝트이다. 인간의 질병의 근본 원인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목표이다. 기존 면역조절제(화학성)의 부작용을 최소화해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생명공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라서 국가적인 개발 과제로 삼은 것이다. 그런데 본사는 이런 첨단 의약품제조기술을 25년 전부터 연구하기 시작하여 생체응답 조절작용제로서의 면역조절제인 미라팜-22를 미국 FDA에 일반의약품으로 등록하고 출시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FDA에 NDC (OTC Drug) 일반의약품으로 인증 등록 됨
일반의약품 등록번호 NDC No.: 58912-2001-1



FDA 직접 확인해보기
NDC Number를 선택하시고
58912-2001-1 로 검색



90cap. 300mg/cap. Made in USA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등
질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MIRA PHARM -22

Mirapharm-22는
Miracle Pharmacy(기적의 약)의 합성어이며
22는 22세기형 첨단신약을 뜻합니다.

100% 천연 물질로 만들었으며 25년간의 연구와 비임상을 거쳐 효과는 확실히 검증이 되었고 부작용의 염려가 없습니다.

- ◆ 14년간의 연구와 11년간의 임상 끝에 미국 FDA에 Human OTC Drug 일반의약품으로 등록됨
- ◆ FDA 등록 연구소에서 성분 분석 테스트 결과 영양 함유물 및 식품으로 안전하다고 인증됨
- ◆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등 면역결핍에 의한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약으로 등록 명기되어 있음.
- ◆ 친환경 100% 천연 유기물질을 핵심 재료로 생명공학적인 공법으로 특수 가공한 차세대 신개념의 첨단 천연의약품인 면역증강 및 면역조절제
- ◆ 면역증강제로도 치유되기 어려운 자가면역질환들을 면역조절제로써 자가치유할 수 있는 첨단 의약품
- ◆ 어떤 면역증강 건강보조식품보다 탁월한 효능을 입증받아 일반의약품 NDC OTC Drug로 등록되었으며, 수많은 난치병들 중 대부분은 자가면역질환으로써 현존하는 약으로는 치료 어렵지만 면역조절제인 미라팜-22는 이런 난치병들을 자기와 비자기를 인지할 수 있도록 면역세포에 작용, 항원특이적 또는 비특이적으로 면역반응을 증강시켜 면역계에 작용하여 면역반응을 촉진시킴으로써 면역을 스스로 조절해 주면서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줌



갑상선
말기암
환자의
최근 체험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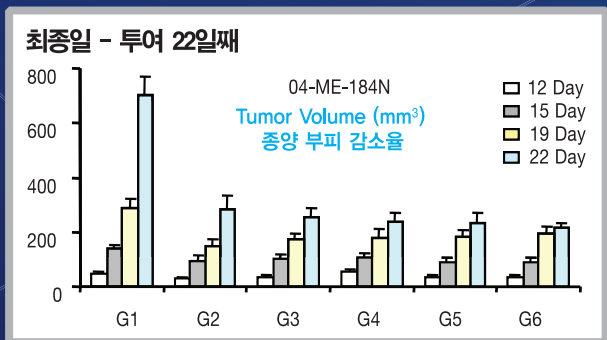
복용 후 5일 11/5/2013
복용 후 25일 11/25/2013
복용 후 77일 1/16/2014



생후 5개월부터
28년된
아토피 환자의
치료 사례

복용후 99일

암 예방 및 치료제인 미라팜-22가 화학 항암제보다 월등히 뛰어나다고 검증된 비임상 테스트 확인 도표



군 (mg/kg)	Control 무치료	Doxorubisin (2) 화학항암제	Mirapharm-22 (75) 미라팜-22	Mirapharm-22 (150) 미라팜-22	Mirapharm-22 (300) 미라팜-22	Mirapharm-22 (300) 사전 예방처리
22일째 (최종일)	704.6 ±67.2	285.6 ±50.6	251.9 ±36.3	235.3 ±34.6	232.1 ±38.5	214.2 ±20.5
22일째의 억제율 %	0	59.5	64.3	66.6	67.1	69.6
	G1	G2	G3	G4	G5	G6

● 화학요법 항암제보다 월등히 뛰어난 암 부위 감소율의 결과로 천연 치료제 미라팜-22의 비임상 결과에 대한 논문은 추후 학술지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 옆의 도표들은 각각 두 차례 정부 인가 연구소에서 비임상 테스트를 통해 나온 결과들이며 미라팜-22를 더 많이 복용했을 때에 더 좋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미라팜-22 총판 및 대리점 모집

난치병 및 각종 암치료제로 더욱 유명해진 천연 미라팜-22가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시작하면서 미국내 지역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이 제품을 판매 및 수출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1. 각 지역 총판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2. 각 지역의 도시의 대리점을 운영하실 분
3. 현재 약국을 운영하시는 분
4. 건강보조식품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
5. 의약품 세일즈 전문업을 하시는 분
6. 건강보조 제품 세일즈를 하시는 분

HQ 헬스 / HQ 바이오텍, INC. L.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월-금: 10am-7pm, 토:10am-5pm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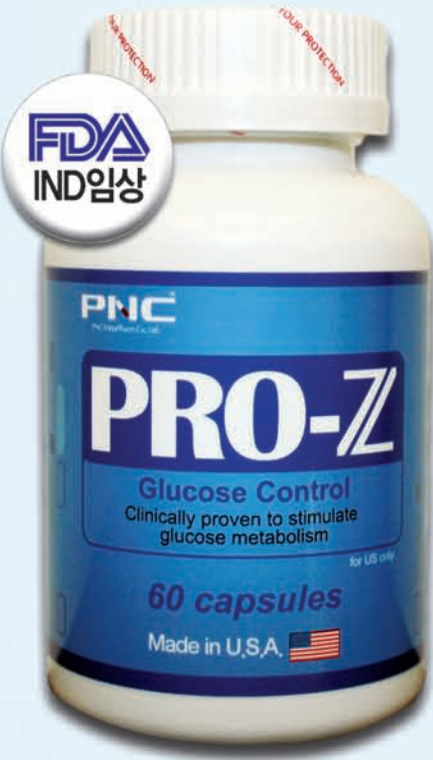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PRO-Z

Special Price

✓ 한국 30만명 판매 ✓ 미국 출시 기념 SALE

1병 \$76 + tax 3병 \$200 + tax 6병 \$372 + tax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에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아반디아와 액토스는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족, 신장부족, 간독성)과 광광암 등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아반디아는 2010년 말에 판매가 중지되었고, 액토스는 2011년 상반기에 프랑스와 독일 유럽 전역으로 판매금지가 확산 됐습니다. 중앙일보 2014년 5월 15일 경제 3면에서 액토스를 복용한 한인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기존의 당뇨약은 혈당은 낮출 수 있으나 각종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팀은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 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현재 미국의 병원 2곳에서는 당뇨치료 보조제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sensitivity)에 깊게 관련된 사실을 주목하여 Zinc Metabolism을 활용한 신 합성물질 프로지를 개발하였습니다.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라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킬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뇨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프로지를 아침, 저녁 하루 2알을 6달 정도 복용 후에 차츰 당수치가 내려가 지금은 정상인에 가까운 수치로 떨어짐. 몸이 부어 걷기 불편했는데 부기가 가라앉아 지금은 걷는데 지장이 없어졌습니다
- 김OO 장로 (당뇨 10년)

프로지를 아침, 점심, 저녁에 하루 3알을 4개월간 복용하니 차츰 당수치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내려가던 당이 7개월째는 정상인 수치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서 혈당 조절을 했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가려서 먹다 보니 뼈밖에 안 남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음식을 이것저것 잘 먹으니 몸에 살이 붓고 건강해졌습니다.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하루 2알만 먹습니다.
- 최OO 목사 (당뇨 30년)

전립선이 심해서 화장실 가는 것도 서 있고 앉아 있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프로지를 하루 3알 4달간 복용하고 나서 고통이 점점 줄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비타민처럼 하루에 2알씩 꼬박꼬박 챙겨서 먹고 있습니다. 고통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너무도 놀랍고 감사합니다.
- 이OO 집사 (전립선)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 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g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프로지를 개발한 송문기 박사는 인류 복지 건강에 위해가 되는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40여 년간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하와이대학, UCLA 대학교수 미 재향군인병원(US V. A. Hospital)에서 근무했으며, 가장 시급한 당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미국 연방식품의약품(FDA)로부터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중이며, 현재 마지막 3차 임상시험 진행이후 상용화 단계인 신약개발과정을 받게 됩니다. 그 전에 FDA의 독성 TEST,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임상 TEST를 거쳐 FDA로부터 신약판매 전에 건강기능식품(PRO-Z)으로 허가를 받아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당뇨원인 기능개선제' 프로지를 출시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체내 아연 대사와 관련한 각종 연구성과를 통해 세계 3대 100인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Marquis Who's Who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과학지인 NATURE 등 세계 유수 연구 관련 기관의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판매점

- 엘바인점 : 714-818-2014
5331 University Dr. #C Irvine, CA 92612
- 오렌지카운티점 : 562-405-0332
- LA 실로암 한의원 : 213-427-0036
2621 W.Olympic Bl. #202 LA, CA 90006
- LA 비디오 마트 : 213-381-2647
363 S.Western Ave. LA, CA 90020
- Mother's Care Pharmacy : 213-739-3030
6th Zion Market
- Vermont Galleria Pharmacy : 213-388-4100
벌몬 갤러리아몰
- Virgil Pharmacy : 213-384-1200
그랜드스파 건물내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미국 공식 판매처

복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추천

그래, 그렇게 한 걸음
고명진 | 두란노서원 | 216쪽

예수님을 목상하며 그분의 삶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크리스천을 위한 책. 영성 깊은 그림과 실감나는 예화를 곁들여 지식이 아닌 마음의 목상으로, 그리고 삶에서 실천하는 한 걸음을 떼게 도와준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대한 33가지 목상으로 이뤄져 있으며,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도록 그림을 함께했다. 1부 비우기와 2부 채우기, 3부 그리고, 예수님처럼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과 그 열매들
임덕규 | 기독교문서선교회 | 296쪽

저자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11번째 시리즈이다. 이번에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저자에 따르면 그리스도와 연합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신자의 구원이 시작되며,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는 구원의 핵심 진리라고 전한다. 또 이 책은 부록으로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를 첨가해 줌으로써, 참된 은혜에 대한 지식을 넓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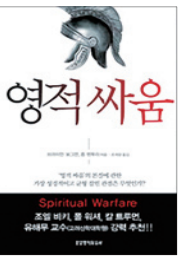
온전한 그리스도인
존 스토틀 | IVP | 144쪽

1980년 영국에서 개최된 <그리스도인의대생>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존 스토틀 목사가 다섯 차례에 걸쳐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주제로 전했다. 강연집이다. 저자는 구체적으로 이에 대해 인격과 소명, 참여와 윤리, 선교 등 다섯가지로 나눠 소개하고 있다. 이 요소들이 '혼란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근원적 부르심'이라는 것. 이 책은 스토틀의 강의 중 유일하게 한국어로만 출판된 것이다.



영적 싸움
브라이언 보그먼 외 | 생명의말씀사 | 216쪽

청교도의 전통을 계승한 젊은 개혁주의 목회자들이 신자들의 치열한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석하고 삶에 적용할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중심으로 쉽게 풀어내고 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영적 싸움과 현실을 성경에 근거해 올바르게 이해시킨 다음, 영적 싸움을 과소평가하거나 지나치게 과장하는 오류를 피한, 건전한 접근 방식을 알려준다.



REVIEW

“묘목 아니었던 거목 없지만 ... 모두 거목 되진 않아”

김남준 목사가 말하는 '부교역자 사역론'

누구나 담임목사를 꿈꾸지만, 대부분 부목사부터 시작한다. 그게 현실이다. 부교역자 시절은 '훈련'으로 통용되지만, 체계적 매뉴얼도 없고 이에 대해 가르쳐 주는 곳도 없다. 심방과 교회학교를 맡으면서 담임목회를 간접 체험한다고 여길 뿐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조금씩 '변아웃'되는 목회자들도 적지 않다. 아니, 부교역자를 하며 신학교에서부터 입학 당시의 열정이 사그라드는 경우도 있다.



김남준 목사

목들 속에 섞여 자라다 나무로서의 일생을 마치기도 한다는 것. “모든 목회자가 한때는 미숙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 마디 말씀으로 많은 교인들에게 감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기까지, 가혹하리만치 긴 세월 동안 그 말씀을 따라 살아온 발자취가 있어야 합니다.”

저자는 그래서 “묘목이 아니었던 거목은 없다”는 말로 책을 시작한다. 하지만 “모든 묘목이 거목이 되지는 않는다”는 말을 덧붙인다. 더 많은 묘목들이 분재처럼 되거나 관

회를 배우고 싶은 그대에게'라는 주제로 책에서 교회학교 사역, 청년교구 사역, 장년교구 사역, 여성교구 사역 등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필요한 덕목과 태도를 따듯한 필체로 전하고 있다. 곳곳에서 '사모'의 역할을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그의 저서 <목회자의 아내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가 오버랩된다.



부교역자 리바이벌
김남준 | 생명의말씀사 | 232쪽

처럼 생각했던 일과 사랑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고 오래 기다려 주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의 차원이다. “제가 여기에 '리바이벌'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은 부교역자가 교회의 리바이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사역자가 참으로 능력있고 좋은 목회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의 심령에 부흥을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 이 단어를 붙였습니다. 이 작은 책이 목회자를 목회자답게, 교회를 좀 더 그리스도의 몸담게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대웅 기자

사랑, 섬김, 나눔

지역사회 섬김을 위한 프로젝트 <올투게더 All-together>

<올투게더 All-together>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롬 12:15)는 말씀을 실천함으로 사랑과 섬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동고동락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컴퓨터/영어/스페인어/포토샵 무료교육

교육일시 11월 1일-12월 24일 / 등록기간 10월 30일까지

✓ 등록비, 교육비, 교재비 일체 무료

한인교회 천로장로교회와 라틴교회 Iglesia Gracia교회가 후원

모/집/대/상

LA와 인근에 거주하는 한인 / 고아, 이혼가정 자녀, 홀사모, 싱글맘,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선 혜택
 *신청자에 한해 간단한 전화 상담을 갖고, 이후 수강 가능여부에 대해 개별적으로 연락드립니다.

213-509-3779

www.pilgrimla.org / email: shnoh3927@gmail.com
 927 S. Bonnie Brae St, Los Angeles, CA 90006

베들레헬대 교환학생의 팔레스타인 르포

무슬림들의 땅이 된 성지 베들레헬, 그곳에서의 6개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지인 '유다 땅' 베들레헬은 지금, 하루 다섯 번씩 '알라'에게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무슬림들의 땅이 됐다. 이스라엘 영토도 아니다. 한때 그 '성지'에 90%에 달했던 기독교인들은 지금 28%밖에 남아있지 않다. 르포 에세이 <베들레헬은 지금>을 쓴 이는 순전히 '색다른 경험'을 꿈꾸며 베들레헬대학교 교환학생에 지원한, 스물두 살의 크리스천 남자 대학생이다. 대학교는 기독교인과 무슬림이 공존하고 있는 곳이다. 양떼가 풀을 뜯는 목가적 풍경을 상상하고 당도했지만, 첫날부터 환상은 깨졌다. 그를 맞이한 것은 자동차 매연과 히잡을 쓴 여학생들, 그리고 복직대는 시장이었다. 전형적 아랍 도시였다.

그래도 베들레헬에 왔으니,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마구간은 봐야 하지 않겠는가? 저자는 전 세계 성지순례객들과 관광객들이 사모하는 '탄생교회'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살게 됐다. 그래서 처음 몇 주 동안 기쁨에 차서 몇 번씩 그곳을 방

문했다. 하지만 곧 시큰둥해졌다. 집 가까이 있어서인지 그곳이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몇 번씩 방문하다 보니, '인공적 공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불쑥 올라왔다. '평범한 마구간이었다면 더 은혜로웠을 텐데...'라고 생각하다가도 '마구간만 있었다면 참 허술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바꿨다. 그는 탄생교회를 들를 때마다 이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탄생교회 광장 맞은편, 거대한 모스크에서 나오는 아랍어 기도 소리는 그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떠나기 전에 자신의 말처럼 '철없고 단순한' 마음이었지만, 다녀온 후에는 이렇게 고백한다. "베들레헬에서 공부하던 하루하루는 제 눈을 뜨게 했고, 몰랐던 사실을 가르쳤고, 편견을 부수며 제 시야를 넓혀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괴로운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지속 가능한 평화와 용서를 노래하고 싶습니다."

분쟁과 장벽, 공습 같은 심각한



베들레헬은 지금 양기선 | 홍성사 | 304쪽

장면부터, 대학 생활과 친구 이야기까지 저자는 꼼꼼한 기록과 다양한 사진들로 팔레스타인인들의 일상을 담아냈다. 글을 시작하기 전, '팔레스타인 아랍인'과 '이스라엘 유대인' 입장에서 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을 각각 서술해주는 등,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그곳에서 팔레스타인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미움이 싹텄지만, 주말에 이스라엘 땅에 나가 선량한 유대인들을 만날 때마다 그

마음은 흔들렸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분쟁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일까. 그는 말한다. "유대인은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무조건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변 아랍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적의 세력이라고 생각해 보았다면, 혹은 유대인들이 중동의 평화를 방해하는 악의 축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은 신문의 국제란에 종종 등장한다. 최근에도 양측은 가자 지구에서 50일간 교전을 벌이며 2천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역만리인 이곳에서 접하는 그들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책을 읽다 보면,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파편화돼 있고 글자 자체로 그치는 것인가를 새삼 느끼게 된다. 저자도 말한다. "직접 그 땅을 방문해 현실과 얼굴을 마주하고 살을 맞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별 감흥과 열정을 느끼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인 거주지를 나누고 있는 장벽. 그 한쪽에 고향의 '보리' 가시도 보인다. ©홍성사

지 못하는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최소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땅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이 땅의 평화와 용서, 그리고 공의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썼다. 이대웅 기자

“전도가 초대라면, 변증은 대화다”

<알리스터 맥그래스의 기독교 변증>은, 이 시대 가장 뛰어난 변증가 중 한 사람이 쓴 '변증학 입문 및 실천편'이다. '구도자들과 회의자들이 진리를 찾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가(How to Help Seekers and Skeptics Find Faith)'라는 부제처럼, 저자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변증에 대해 살피고, 변증에 필요한 여러 주제들과 그 방식을 간단히 소개한다. 사례연구도 시도하며, '자신만의 변증방식 개발하기'를 도전한다. 저자가 말하는 '변증'이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변호하고, 그것을 비기독교 세계에 효과적으로 전하는 일이다.

저자는 변증의 목적을 '교회 밖 사람들이 눈을 떠서 기독교 신앙의 실체와 신빙성과 적합성을 보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밝힌다. 변증이 '교회 밖 사람들을 적대시하거나 그들에게 굴욕감을 주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다. 선포되는 메시지와 메시지 선포자의 어조는 조화를 이뤄야 하고, 변증가는 호감을 사고 너그러우며 자애로워야 한다.

변증학의 기본주제에 대한 복음에 대한 반대나 어려움을 규명하고 여기에 대응하며 신앙을 가

로막는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돕는 변호하기(defending), 인간의 처지를 바꾸는 기독교 신앙의 잠재력을 알 수 있도록 기독교 신앙이 주는 흥분과 경이를 전달하는 권하기(commending),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개념을 외부인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번역하기(translating)로 요약한다.

무엇보다 '변증학을 명확히 설명하는 문장은 저자의 다음과 같은 정의이다. "변증학이 대화라면, 전도는 초대다." 변증은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초대에 좀더 긍정적으로 반응하도록 기반을 다지는 일이라는 것. 변증학은 전도가 아니지만, 전도가 빠진 변증학은 불완전하다. "다시 말해 전도가 빵을 건네는 일이라면, 변증학은 '저기 빵이 있으며 그 빵이 맛있다'고 납득시키는 일이다." 직접적이고 노골적일수록, 부담도 없다는 말이다.

<만들어진 신>의 도킨스류(類) '신무신론(新無神論)'과 획일주의를 거부하는 '다윈주의'가 팽배한 21세기의 변증에 대해, 저자는 기독교가 모더니즘의 '합리주의'에도 대체로 잘 대응해 왔고, 포스트모



알리스터 맥그래스의 기독교 변증 알리스터 맥그래스 | DMI | 340쪽

더니즘의 발흥(發興)에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고 안심시킨다. 다만 2천년 기독교 역사 중, 모더니즘 이전의 변증학 전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도전이 '응전'할 자원이 충분하나, 단지 수 세대 동안 꺼내 쓰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신앙을 이해하고 △정중을 이해하며 △명쾌하게 전달하고 △접촉점을 찾으며 △온전한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실천하고 실천하고 실천하라"고 권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변증 초보자'

들에게, 정답이나 매뉴얼을 찾으려 하기보다 다양한 '임상실험'을 통해 자신만의 방식을 개발하는 일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믿음에 관한 질문과 관심은 문화에 따라 다르고, 각 사람에게 처한 상황도 모두 다르며 그들의 신앙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의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변증가는 질문을 경청해야 하고 질문에 자기 자신만의 '모범'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

'변증학'이란 용어가 파생된 것은 그리스어 '아폴로기아(apologia)'로, 이는 변호(defense), 즉 '법정에서 피고의 무죄를 증명하는 논리 정연한 주장 또는 논증이나 신념의 정확성에 대한 입증'을 말한다.

이 단어는 그 유명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

이 이 구절을 성경에서 변증학의 중요성을 말하는 고전적인 구절로 본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logos)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apologia)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가 보기에 변증이란, 진리를 부드럽고 정중하게 변호하는 일이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장점을 찾아내, 그것을 가장 유익하게 활용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이 책의 원제는 그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전기를 쓰기도 했던 '선배 변증가' C. S. 루이스(C. S. Lewis)의 <순전한 기독교(Mere Christianity)>를 오마주(?)한 'Mere Apologetics'다.

이대웅 기자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한한 옷!!

너무 쉬운「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깁스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결작품**입니다.



NB 코르셋의 특징

- 24시간 입어도 갑갑하지 않고 편안함
- 입자마자 자세가 달라짐(교정)
- 입자마자 혈액순환이 달라짐(통증완화)
- 특수 공법으로 수축되지 않고 인체에 완벽한 섬유와 세계 특허 이중지퍼 사용. 한국 식약처에 의로기기로 등록된 교정 코르셋

쓰러진 토마토를 세우는 것은 **버팀목**입니다. 의사가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깁스를 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팀목(기립근)이 약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B 코르셋」은 늘어지지 않는 특수 천으로 깁스를 대신하고 코르셋 속의 10개의 버팀목이 약한 근육을 대신하여 골반과 척추와 경추를 바르게 교정해줍니다.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 각종 질환
요실금 중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으신 분 O형다리 거북이목
- >> 미용효과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NB CORSET Tel: 323.316.6815

'가적의 섬유'로 만든 「음이온 건강이불」 발이 불편한 분은 「NB 메디칼 슈즈」, 가장 강한 「SJP 슈퍼 유산균 건강제품 전문

무료 광고지참시 방문하신 모든분께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혈행 검사 *체질 검사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중고차 황제 김기형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는 UCLA의 대학 박사 40여년간 연구 개발한 PRO-Z는 미국FDA에 치료 약으로 인정되어 주성분인 아연과 크롬으로 의약품에서 획기적인 연구개발로 임상평가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재향군인 병원에서 임상실험 결과 최상의 6개월복용시 당뇨병에 탁월한 효과로 개선됨을 확인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해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췌장베타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시키는 데 PRO-Z가 해결해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명의 당뇨병이나 인슐린으로 혈당 유지를 하는데 그쳤으나 PRO-Z는 췌장에 인슐린 분비를 확실하게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제로 세계 최초로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고 있는 당뇨병 개선제입니다.

지긋지긋한 당뇨병 탈출

당뇨병을 앓고 있던 당뇨병이 이제는 치료가 됩니다. 새로운 당뇨병 개선제 PRO-Z를 6개월만 복용하시면 지긋지긋한 당뇨병에서 해방되어 정상인과 같은 건강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줍니다.

1병 \$76
3병 \$200
6병 \$372

PRO-Z USA 미국 판매처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당뇨병 가능 개선제 PRO-Z

TONERSUM 칼라레이저 프린터 리스(임대) \$49.99/mon 선착순 5명

\$69.99 \$149.99 **SAVE: \$80.00 (53%)**

MULTIFUNCTION LASER PRINTER 레이저 프린터(칼라흑백) Blow Out Sale!!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SAMSUNG SCX SERIES SCX-3405W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판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중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090)인 계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K.T. 택배 T. 213-365-8588

말도 안되는 가격 \$ 6.99 초고속 픽업 & 배송!!

전화 한통화로 당일무료 픽업!

무료포장 (박스, 충격흡수제 무료)

최저 가격!! 인터넷 사업자 대박우대

소량화물 4개중 1개 공짜!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는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KO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커튼 전문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션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cliff Ave. Lancaster, CA 93535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온돌마루

UL마크 인증제품 사용 NRTL(미국 전기 안전 규격제품).

획기적인 절전제품/ 전자파제로

안방 아랫목, 거실, 기도실, 유아방, 잠실방 설치중

피코 건축자재 (피코+카탈리나) 213)256-4884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시내· 타주이사·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신고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엮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 트랜스미션
- 타이밍벨트
- 브레이크
- 툰업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쇼스피드 다이어트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1주분 다이어트 약 \$60 부터...

하머니크림 (습윤크림)

- 임신 중 튜살 방지
- 건선으로 인한 붉은 주름(얼굴, 목)
- 트고 갈라진 피부 보습(발 뒷꿈치)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자궁축, 하혈)
- 우울증
- 관절염
- 원형탈모
- 구연산 캡슐

배배는 속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영어: 213.380.6868 (오바마 케어 포함)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win HYUNDAI CARSON 원현대 칼슨 HYUNDAI

이번달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이벤트 "2015년형 뉴 제네시스 입하"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All advertised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any electronic filing charge, and dealer document processing charge, and any emission testing charge. All vehicles are at Carson location. Offers available through Jan. 27, 2014

“미국 내 자유주의 교회는 급감, 복음주의 교회만 성장 추세”

골든게이트침례신학교 한영이중언어 과정 담당자 안상희 교수

골든게이트침례신학교(GGBTS,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가 최근 샌프란시스코 인근 밀밸리에 위치한 본교를 매각하고 남가주 온타리오로 이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GGBTS는 남침례교회(SBC)에 소속된 6개 신학교 중 하나로, 북가주, 남가주, 워싱턴, 콜로라도, 애리조나 주에 본교를 운영하고 있다. 각 본교는 교수들이 직접 방문해 강의를 진행하며 도서관 자료도 하루 이틀 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본교의 자원을 유기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한영이중언어 과정을 제공하는 남가주 본교에는 한인 1세 교수 1명, 한인 1.5세·2세 교수 3명, 한국에서 20년 이상 선교해 한국어에 유창한 백인 교수 등 한국어가 가능한 전임교수가 총 5명이다. 이외에도 미국 전역에서 전문적인 신학 훈련을 받은 목회자들이 강사로 섬긴다. 목회학 석사, 교육학 석사, 신교학 석사, 신학 석사 과정이 개설되어 있고 재학생은 영어 과정 150명과 이중언어 과정 50명, 총 200명이다.

남가주 본교의 한영이중언어 과정 담당자인 안상희 교수는 교회가 희소한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부의 바이블벨트”라 불리는 남가주 지역으로 캠퍼스를 이전하게 되면 이곳의 여러 지역교회와 협력해 신학생들이 학업과 동시에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온타리오가 속한 LA동부 인랜드 엔파이어 지역은 한 연구에서 향후 20년 간 미국 전체 도시 중 인구 증가가 2번째로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꼽혔다. 이 연구 결과처럼 사람이 많이 유입된다면 그들을 목회할 교회들도 필요해질 것이다.”

또 새로운 캠퍼스인 만큼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원격교육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캠퍼스가 이전되면 첨단교육 시설을 도입해 홀로그램을 통해 학생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신학 교육과 다양한 기술을 결합한 시도가 이뤄질 것이다. 또, 앞으로 원격교육이 중요해지며, 수요자들 즉 학생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교육을 받길 원하기 때문에 원격교육이 강화될 것이다.”

급감하는 자유주의 보수주의 교회만 성장해

한편, GGBTS의 이전 소식은 세속화와 종교다원주의가 호시탐탐 교회로 들어올 기회를 노리고 있는 이때, 세상의 변화에 몰리지 않은 바른 신앙을 수호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한다. 안 교수는 워싱턴주립대학의 제임스 웰만(James Wellman) 교수가 『복음주의 대 자유주의(Evangelical vs. Liberal: The Clash of Christian Cultures in the Pacific Northwest)』라는 책에서 지적한 미국 북서부 지역의 자유주의 급감과 복음주의의 성장 현상을 언급했다.

“이 책에 따르면 북미에서 자유주의 교회는 급감하는 반면 복음주의 교회는 성장 추세다. 사회 전체를 보면 복음주의보다 자유주의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별히 젊은 세대일수록 두드러진다. 문제는 자유주의화 되면 교회를 떠난다는 점이고 이 때문에 보수적인 이들과만 교회에 남게 된다.”

그는 GGBTS가 표방하는 보수주의란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자고 외친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주의는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자는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른다. 자유주의 혹은 진보주의는 세상의 변화를 수용하고, 변화에 맞춰 신앙을 변형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보수주의는 성경적 가치를 지키고 그것을 선포해야 한다고 본다. 세속적 가치에 성경을 맞추는 게 아니라 세상이 성경을 따라와야 한다.”

종교다원주의자도 복음 들으면

종교다원주의의 도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묻자 그는 “복음의 능력 앞에서 그 도전은 패배한다”고 말했다.

“자유주의적 진영에 있는 분들이 정교한 논리로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나 이들의 영향력은 점차 미약해지고 있다. 한편, 미디어가 종교다원주의를 유포해도 개인에게 복음을 전해 중생을 체험하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모든 종교는 동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무신론자들도 복음을 들으면 순식간에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 변한다.”

안 교수는 복음주의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적은 진보주의, 자유주의나 종교다원주의가 아닌 세속주의라고 주장했다. 세속주의는 복음에

대한 관심 자체를 말살해 버린다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도, 부요한 세상에 살면서 생생한 복음이 아니라 너무 편한 복음만 받아들였다. 우리가 어려웠을 때 오히려 열정이 뜨거웠는데 부유해지면서 신앙의 힘과 열정을 상실했다. 우리 자체도 많이 변질된 것이다.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선 세속적인 안락함을 많이 내려놔야 한다.”

하나님, 기적을 행하실 수 없다?

신실한 크리스천이면서 지적으로 정직하며 바른 과학자가 될 수 있을까? 기독교 안에서도 과학을 대하는 태도는 여러 갈래로 나뉜다. ‘과학의 합리적인 언어와 성경의 영적인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호작용도 불가능하다’는 주장, ‘과학과 성경이 서로 배타적이며 양립할 수 없다’는 주장, ‘과학과 기독교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주장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 과학과 성경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그는 과학적 설명이나 이론보다 성경의 권위를 우위에 둔다고 답했다.

“성경이 과학 교과서도, 과학적인 주제를 다루기 위해 쓴 책도 아니라고 본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진리로 받아들인다. 이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란 문제와 맞닿아 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없다. 하나님이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개입하신다고 믿는다. 보수적인 사람들을 단했다고 비판하지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할 수 없다’고 한정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오히려 편협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다고 믿는 게 오히려 열린 태도가 아닐까?”

역사상 가장 폭력적인 무신론

때로 이러한 성경해석으로 보수주의 기독교는 전투적인 무신론 과학자들의 공격 대상이 되어 왔다. 이들이 보수주의 기독교를 공격하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종교의 폭력성’이다.

“10년 안팎으로 리처드 도킨스를 필두로 새로운 무신론(New Atheism)이 대두했다. 이들의 주장 중 하나는 보수주의자들을 ‘근본주의’라 부르며 종교가 근본주의가 되면 폭력적이라는 것이다. 이슬람의 테러리



안상희 교수

스트라든지 보수적인 기독교인을 주로 공격한다. 이들은 보수적 기독교인 역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진 않지만 가치관이 공격적이라고 주장한다. 보수적 크리스천이 갖고 있는 교리나 ‘당신은 지옥간다’같은 말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폭력적으로 들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20세기의 역사를 보면 그들의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폭력적인 사람은 바로 무신론자였다.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 등이 그 예다. 그렇다고 ‘무신론은 폭력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 개인의 성향이라고 봐야지 ‘무신론은 폭력적’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마찬가지로 ‘종교가 보수화되면 폭력적이 된다’는 말도 논리적 비약이다.”

교리 논쟁보다 신앙 본질 집중해야

그러나 그는 세속주의와 무신론 과학자들의 공격에 맞서는 데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교회의 본질을 잃게 되며 그로 인해 청년들마저 잃게 된다고 덧붙였다. 세속적 가치보다 우월한 논증을 제시한다고 해서 청년들을 교회에 붙들어 둘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청년들을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보수적인 신앙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본질에 집중하는 게 더 시급하다. 젊은이들은 체계로서의 종교, 교리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실재가 중요하다. 진보라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진보주의 교인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부분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것이며 보수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교회에 남는 비율도 더 많다고 생각한다.”

“젊은이들에게는 교리에 대해 정확히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하나 하나님의 실재를 경험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자칫 잘못해 복음주의 교회가 세속적 가치와 계속 전투만 하다 보면 마음이 황폐해지고 삭막해지고 이보다 본질적인 구원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초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것은 젊은 세대를 잃어버리는 길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안 교수는 “앞으로 골든게이트 본교가 남가주로 이전하게 되면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한인사회를 섬기게 될 것이다. 남가주 한인교회와 한인사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 주디 기자

추나
수술 없이
척추 치료



장수한의원

척추 교정

골반 교정

자세 교정

근육 교정

한방 특진 안내 >> **침, 뜸, 부항, 추나**

두통, 목, 오십견, 요통, 관절염, 좌골신경, 신경통, 중풍, 위장병, 간장병, 심장병, 신경쇠약, 신경통, 고혈압, 부인병, 갱년기 장애, 어린이 보약, 산전산후 보약

각종 보험 환영 직장상해보험
교통사고 및 스포츠사고 전문
HMO (이지초이스)
통증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

- 디스크 치료 후에도 계속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팔이 뻣기고 저리며 통증이 있거나 감각이 없으신 분
- 목을 돌리기 힘들고 통증이 있으며 손가락에 감각이 없으신 분
- 어깨 통증으로 팔을 들어 올리기가 힘든 분
- 잠을 자고 난 후 갑자기 목을 움직이지 못하며 통증이 심하신 분
- 갑자기 허리를 움직이지 못한 정도로 통증이 심하신 분
- 지긋지긋한 허리통증과 만성 디스크로 뼈떨어진 척추
- 영치 및 다리가 뻣기고 저리며 통증이 있으신 분
- 물건을 들다가 삐끗하여 허리가 아프신 분
- 그 외 척추로 인한 모든 질병 걱정 뚫!

통증 클리닉: 중풍마비, 관절염, 두통, 신경통, 요통, 디스크, 허리, 목
성 클리닉: (남성)전립선, 발기부전, 조루, 정력저하, (여성)불감증
한방 내과: 감기, 천식, 고혈압, 당뇨, 위장병, 갑상성 질환, 변비, 알러지, 피부병, 비염
한방 부인과: 불임증, 갱년기 장애, 월경불순, 산전 산후 보약
한방 정신과: 치매 및 예방, 우울증, 불면증, 각종 스트레스 질병
한방 소아과: 허약체질, 소아경기, 성장장애 및 보약 **기타**: 비만치료

이런분께
▶ 이곳 저곳을 다녀 봤지만 효과 못본 분
▶ 지긋지긋한 고질병을 없애고 싶은 분
▶ 본인은 고통스럽고 불편하나 병원을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213)381-7575 / Cell:(213)219-2739

월·금 오전9시-오후6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2시 (예약 하신분에 한해서 밤 10시까지 진료)

3523 W. Olympic Blvd. #102
Los Angeles, CA 90019

북미 최대 한인 현대 딜러

P-H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북미에서 에쿠스를 가장 많이 파는 딜러

2015
HYUNDAI GENESIS
SEDAN 3.8L
MODEL# B1402R65

\$388 ^{+TAX} 36 Mon.

MSRP: \$39,105, 36-MONTH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 \$1,000 VALUED OWNER COUPON
+ \$500 MILITARY REBATE + \$400 COLLEGE GRAD REBATE,
20 CENTS IN EXCESS OF 12,000 MILE/YEAR, ON APPROVED CREDIT.
COLLEGE GRAD REBATE, 20 CENTS IN EXCESS OF 12,000 MILE/YEAR,
ON APPROVED CREDIT.



NEW 2014
HYUNDAI EQUUS
SIGNATURE 'DEMO'
MODEL# E 0422R85

\$488 ^{+TAX} 36 Mon.

MSRP: \$62,170, 36-MONTH CLOSED END LEASE \$5,999
DUE AT LEASE SIGNING + \$2,750 LEASE CASH + \$1,500
COMPETITIVE OWNER COUPON + \$500 MILITARY
REBATE + \$400 COLLEGE GRAD REBATE, 20 CENTS IN
EXCESS OF 12,000 MILE/YEAR, ON APPROVED CREDIT.



HYUNDAI

1-888-850-2077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스티브 장
626.513.4006



찰리 정
626.513.4981



저스틴 길
626.513.4580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www.phhyundai.com

